

‘한빛3·4호기 결함’ 대국민 사과 요청에 현대건설 ‘묵묵부답’

한수원, 현대건설에 총 4차례 공문 발송·결함발생 대해 책임분담 논의 현대건설 측 “시간 달라”...관련 정보 제공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가 한빛3,4호기 격납건물 공극 등 결함 발생과 관련 시공사에 영광지역과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현대건설에 총 4차례 공문을 보냈고, 결함 발생에 대해 책임분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9월 18일 4차 공문에서 한빛3,4호기의 부실 운영에 대한 지역과 대국민 사과발표를 공동으로 하거나 각각 추진하자고 제차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시간을 더 달라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

수원측은 전했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한수원의 후속 대책 협의나 한빛3,4호기 공극 등 원인 조사 과정에서 시공 품질 보증기 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원전 시공의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형 표준원전’의 타이틀을 이데 대해 현대건설은 시간을 더 달라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

설은 국내 원전 총 9기(월성2·3·4, 한빛5·6, 신고리3·4, 신한울 1·2)를 맡았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1·2호기 사업에도 현대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과 함께, 한빛3,4호기 구조건전성평가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 당시 설계와 규제, 감리를 담당할 기관들 역시 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최초 원전의 국산화를 표방한 국책사업이지만 건설 당시부터 지역주민들이 부실 공사, 안전 우려 등이 제기됐어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됐다”면서 “당시 설계와 감리, 시공을 담당할 주체들은 30여년간 불안과 고통을 받은 지역주민, 국민들께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희기자



‘한글날 연휴 끝, 봄비는 제주공항’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출발층이 많은 사람들로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시작된 한글날 연휴 3일간 1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다.

보안 또 뚫린 광주공항...‘초등생 제주행’ 사흘간 알지 못해

만 13세 이하 아동인데도 보호자 없이 여객기 홀로 탑승

광주공항에서 한 초등생이 언니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보안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10일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공항에서 초등생 A(13)양이 홀로 항공권을 구입해 제주도로 이동했다. 조사 결과 A양은 친언니인 B(16)양의 신분증을 이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만 13세 이하 아동은 보

호자 없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지만, A양은 당시 공항 보안요원과 항공사 관계자의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제주 도심에서 생활하던 A양은 이날 부모의 미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공항은 이날까지 사흘간 보안 허점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공항은 공군과 일부 시

설·부지를 함께 사용 중인만큼, ‘탑승 수속 보안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공항 관계자는 “보안요원 등 직원들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었다. 어떤 경우로 A양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공항에서는 지난 7월에도 한 20대 여성이 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보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최이슬기자

광주경실련 “세계김치연구소 통합 반대...독립기관 유지”

“통합 되면 기구 축소되고 자율성·독립성 크게 훼손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세계김치연구소를 독립 기관으로 존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세계김치연구소를 한국식품연구원과 통합하려는 논의가 있다”면서 “세계김치연구소는 2012년 광주시에 이전 개소한 이후 김치기능성 유산균 발굴, 우수 김치종균 개발, 김치생산공정 자동화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도 20여년 간 중

양정부와 협력, 김치 관련 연구·전시·생산·판매·체험 등 복합기능을 하는 김치테마복합단지인 남구 소재 광주 김치타운 일원에 구축해왔다”면서 “연구소 효율화를 명분으로 세계김치연구소와 한국식품연구원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기구가 축소되고 연구의 자율성·독립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치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김치중주도시 광주와의 연계 효과도 현격하게 약화될 것이다”며 “당초 계획대로 세계김치연구소를 독립적인 부설 연구기관으



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기능 안정화와 자립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독립연구소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승호기자

전남에 공급한 인플루엔자 백신 4628개 회수

접종자 중에서 이상 반응 사례 아직 없어

전남도는 인플루엔자 백신인 ‘코박스플루4가PF주’ 제품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돼 제조업체인 ㈜한국백신이 전남에 공급한 4628개를 자진 회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박스플루4가PF주 제품이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한국백신은 국민 안심차원에서 전국에 공급된 총 61만5000개 제품을 자진 회수키로 했다. 한국백신이 전남지역에 공급한 백신 총 7570개 중 이미 접종된 6개 시·군의 2942개(여수 85, 순

천 135, 구례 312, 고흥 1134, 영암 387, 신안 889)를 제외한 남은 4628개를 모두 회수한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접종자들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해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토록 조치했다. 전남도 내 접종자 2942명 중 현재까지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없다. 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해당 백신에 대한 회수 조치에 협조하고, 오는 13일 재개될 무료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접종기관에서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육안으로 확인 후 변색이나 침전 등이 있을 경우 접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인플루엔자 백신이 유통과정 중 상온에 노출돼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백신 공급방식이 다른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지난 25일 재개됐다. 오는 13일부터 만 13~18세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각 대상자별로 순차적인 접종이 이뤄진다. 김민정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